

‘짚뚱 대책’ 시리즈...수요자 “더 기다려보자”

광주·전남 미분양 되레 늘었다

“양도세 감면 등 규모 큰 종합대책 필요” 지적

정부가 최근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건설업계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등 지방의 경우 지난달 11일 미분양 대책 이후 미분양 물량이 되레 늘어나는 등 시장이 ‘뚝딱’도 하지 않고 있다. 23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이 효과적이지 못한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미분양 대책으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유예해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체와 수요자들은 추가 대책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미분양 대책이 지방시장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광주의 경우 정부의 미분양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이 되레 늘어났다. 6월 말 현재 광주 민간아파트의 미분양은 7천843세대로 한 달새 8.4%(605가구)나 늘었다. 정부의 ‘뚝딱’ 처방이 시장의 흐름에 크게 뒤처지면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미분양물량 13만세대 가운데 2만여세대가 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산에서 6월 미분양이 1만 1천557세대로 전월보다 8.6%(1천86

세대) 줄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지방 도시에선 오히려 미분양이 늘었다. 국토부가 최근 대한건설협회나 한국주택협회 등의 견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제대로 된 해소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뚝뚝뚝’ 내놓은 탓에 수요자들이 또다른 대책발표를 기다리는 등 역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정부 대책의 강도가 시장 침체의 정도를 크게 밑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 정부의 대책만으론 값싼 미분양주택 매입을 고대하던 수요자들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주택 구매자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거나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또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인정기간을 대폭 늘리고 ‘약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대책은 매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지난 1999년 도입돼 수요자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23일 광양제철소 미니밀 공장 인근 부지에서 열린 후판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이구택 포스코 회장, 박준영 전남 도지사, 유윤근 국회의원, 이상용 광양시장 등이 착공버튼을 누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착공

포스코 2011년 연간 700만t 생산...세계 1위로

포스코가 광양에 후판공장을 착공함으로써 2011년 연간 700만t의 후판 생산능력을 갖춘 세계 1위 후판 생산업체로 도약한다. 포스코는 23일 조선, 중공업 등 후판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2009년 광양 4고로 능력확장공사 이후 늘어나는 쇠뿔을 최적 활용하기 위해 광양제철소에 연산 200만t 규모의 후판공장을 착공했다. 광양제철소 미니밀 공장 인근 부지에서 열린 후판공장 착공식에는 이구

택 회장을 비롯한 박준영 전남남도지사, 유윤근 국회의원, 이동근 지사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이상용 광양시장,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구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양 후판공장 착공은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폭발적인 후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2010년 광양 후판공장이 준공되면, 포스코의 후판 생산량은 700만t 이상으로 늘어나 국내 조선,

중공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번 후판공장 착공과 함께 후판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강 및 연주설비와 산소공장 등을 함께 건설하며 2010년 7월 함께 준공할 계획이다. 총 투자비는 1조8천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올해 투자비는 전체 투자비 1조 4천억원 수준의 포항 신제강 공장 등을 포함해 6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만t 규모의 광양 후판공장이 완공되면 포스코 후판 생산량은 2007년 430만t에서 2후판, 3후판 설비합리화 효과가 더해져 2011년 725만t 이상으로 늘어나, 세계 1위 후판 생산업체로 도약한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 조선업체들 ‘약진’

대한조선·SLS 조선 등 수주잔량 순위 상승

올해 들어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한조선 등 국내 중소 조선업체들이 대거 수주잔량 순위가 상승하는 등 약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조선·해운 시장분석 전문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주잔량 281만CGT(표준화물선환산수)로 9위를 기록했던 성동조선해양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8위(307만CGT)에 올랐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868척, 1천820만CGT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축소되는 52.4%, CGT 기준으로는 47.4% 각각 감소했다. SLS조선은 같은 기간에 수주잔량은 1만CGT 줄은 199만CGT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14위로 한단계 도약했다. SPP조선은 24위(154만CGT)에서 21위(157만CGT)로 올라섰고 SPP해양조선은 25만CGT 늘어난 148만CGT로 7단계 상승한

26위를 기록했다. 또 대한조선과 C&중공업은 작년 말에 41위(102만CGT), 60위(63만CGT)를 기록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39위(114만CGT), 47위(84만CGT)로 각각 2, 13단계 상승했다. 이밖에 대한조선과 진세조선도 수주잔량이 8만CGT, 11만CGT 늘면서 58위(71만CGT), 59위(70만CGT)로 각각 3, 6단계 순위가 올랐다. /이종대기자 jilee@

녹색축산 육성 1천억원 조성

전남도 2018년까지

전남도가 축산에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녹색축산’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녹색축산 육성기금’을 조성한다. 녹색축산은 전남도가 축산 환경을 개선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기금조성 기본계획을 확정된 뒤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 내년에 200억원, 이후 매년 100억원씩 총 1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도내 전 축산 농가와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녹색축산에 필요한 가축 운동장 확보와 방목축산 등 동물복지 실현사업, 축사시설 개선사업, 친환경축산물 유통 판매사업, 축산 기술 개발, 국제교류 및 시장 개척 사업 등에 쓰인다. 특히 화재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희생자금(보조)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

“노사 상생 위해 구조조정 철회”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 23일 “노사가 합심만 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이날 광주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최근 과업사태와 관련, “노조측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노사 상생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을 철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사장은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광주와 곡성공장의 근로자 431명을 감축하려 했으나 노조 측에서 광주공장 10%, 곡성공장 3%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약속해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고 노사 상생의 길을 택했

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 측이 생산성 향상 약속을 지킨다면 연 250억원에 이르는 적자 및 연간 인건비 상승분 등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현재의 위기를 거뜰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노조측이 생산성 향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의 431명에 대한 구조조정안에 반발, 지난 달 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지난 11일 사측이 구조조정을 철회하는 대신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생산량을 각각 10%, 3% 늘리고 기본급 3%, 상여금 50% 인상 등의 합의안이 도출돼 파업을 풀었다. /이종대기자 jilee@



‘커플티 1+1’ 호응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5층 크리스티 매장에서 여는 휴가철을 맞아 커플티 한 개의 가격으로 두 개를 주는 ‘1+1 비킹스 커플룩 행사’를 실시, 남녀 커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p>조이 여행사</p> <p>일본 - 1박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양반 4박5일 439,000 대형양반 5박6일 535,000 대형양반 6박7일 699,000 대형양반 7박8일 559,000 대형양반 8박9일 399,000 	<p>중국 - 4박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장가계/원가계 4일 649,000 장사/장가계/원가계 5일 679,000 상하/북두산 4일 949,000 상하/북두산/단풍 5일 999,000 <p>대만 - 3박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해/항주/소주 4일 519,000 상해/항주(산발속박)/항주 4일 719,000 상해/항주(산발속박)/항주/소주 5일 739,000 상해/항주(산발속박)/항주/소주 5일 769,000 	<p>일본 배낭여행 상담 가능</p> <p>중국 - 4박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마카오/심천 4일 829,000 홍콩/심천/디즈니랜드 4일 829,000 홍콩/마카오/심천 5일 879,000 <p>대만 - 3박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베이/타이베이 5일 539,000 푸젠 5일 699,000 타이베이/타이베이/타이베이 4일 699,000 타이베이/타이베이 5일 899,000 타이베이/타이베이 5일 749,000 상해/항주/소주 5일 999,000 	<p>국내 관광 - 1박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도/목산도 1박2일 170,000 거제도/와도 1박2일 140,000 거제도/해동 1박2일 214,000 통영도 2박3일 303,000 <p>대우관광상품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우관광상품권 2일 99,000 제주투어 1박2일 99,000 제주도철기투어해커지 3일 289,000 <p>★ 할인상품권 ★ 친정버스 ★</p> <p>기름 여행비자문의</p> <p>담당 직통전화 ☎ 233-5900</p>
---	--	---	--